

은유와 상징의 결핵 담론에서 근대 문학의 과학 담론으로의 변환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

표정옥*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은유적 결핵에서 피로와 위생의 과학적 사고로의 전환
- III. 결핵과 함께 생성된 섭생과 요양의 면역관념
- IV. 결핵의 새로운 기의로서 정신질환과 신경쇠약증
- V.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가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들은 실제 결핵에 걸린 작가들이며 그들이 느끼는 결핵의 공포가 과학과 사회 문화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광수를 비롯해서 많은 근대 작가들은 이 공포의 치명적인 질병에 맞서야 했는데, 김동인, 나도향, 염상섭, 강경애, 최정희, 김유정, 이상, 채만식, 박용철, 이용악, 오장환, 현진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시킬 것이다. 첫째, 많은 문학 작가들에게 결핵은 은유와 상징으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결핵이 추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원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시화 과정 속에서 위생과 피로가 관련된 과학적 질병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함께 인식되어 가면서 결핵의 원인과 결핵의 실제 발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둘째, 결핵이 위생과 과학적 사유와 관련이 있지만 당시 조선인들의 영양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역체계의 취약성은 당시 근대 조선을 상징하는 새로운 기표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많은 쌀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 숙명여자대학교 교양교육학부 의사소통센터 교수

정작 조선 내 이용 가능한 식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다. 곡류의 양은 줄어들고 서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현상이 문학작품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김유정과 이상의 작품에는 이러한 요양이 문학 작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섭생과 요양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면역강화가 질병을 극복해내는 자생력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게 하였다. 셋째, 1930년대 급증하는 결핵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에 대한 긍정적 신호보다는 우울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였다. 유독 1930년대 발표된 결핵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보여주는 정신 질환적 증후와 신경 쇠약증은 근대 결핵을 살피는 또 하나의 기표이며 질병 매개체이자 상징이다.

열쇠어 : 결핵, 은유, 상징, 근대, 사회문화적 의미, 과학적 사고, 면역관념, 정신질환, 신경쇠약증, 기표, 기의, 기호학.

I. 들어가며

결핵은 고대 일찍부터 존재했던 인류의 고질적인 질병이었고 근대 도시화와 함께 급속하게 전파되었던 무서운 전염성 질병이다. 결핵은 이탈리아가 르네상스를 맞이했을 때 가장 창궐했던 질병이었고 19세기 세계의 산업화와 도시화와 함께 급속하게 인류에게 공포로 확산되었던 질병이다.¹⁾ 1882년 로베르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은 불치병이었던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기가 되었다. 결핵과 같은 감염성 질병이 더 이상 초자연적인 신이한 신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 노력과 과학적 처방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이른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가능해 졌고 그러한 인간 중심적 세계 인식은 근대가 낳은 획기적인 사유체계이기도 하다.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은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유해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잘 작동하는 현상이라고 정과리는 진단한다. 즉 감염병과 같은 질병은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척 등의 본능적 차원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인간에게 산다는 것과

1)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출판사, 2008, 48~49쪽.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인문학적 사유의 대상이라고 말한다.²⁾ 현대사회에서 결핵을 포함한 전염병과 감염병은 세계화에 따른 공간의 확장과 동서양 문화의 교류가 낳은 인류 문화의 부정적 부산물이기도 하다.

근대인들이 느끼던 결핵공포증과 현재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결핵인식에는 상당히 많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결핵과 같은 질병이 치명적인 죽음의 공포를 유발한다는 것이 전근대의 사유라면 근대의 사유는 의학의 진보로 인간이 스스로 몸을 다룰 수 있고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근대는 질병에 대한 권력적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질병은 인간의 운명적인 것의 결과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깨진 특정한 물리적 현상이라는 사유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공포이거나 저주라는 질병의 초월적 인식에 대한 일종의 인간 사유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결핵에 대한 연구 논의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결핵의 제도적인 정책과 현황에 대한 연구들을 대략 살펴볼 수 있고, 결핵이라는 병이 근대에 어떻게 발생하고 근대화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연구들을 대략 살펴 볼 수 있고, 결핵이라는 병이 문학에서 어떻게 상징과 은유적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 주는 논의들을 찾을 수 있다. 김건열³⁾과 배송미⁴⁾의 논의를 보면 결핵의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적

2) 정과리,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3) 김건열, 「21세기 결핵퇴치 5대 과제」, 『협회장 백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초록집, 2000.

김건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최근 결핵 역학 조사 성적이 없어서 결핵문제의 크기를 모르고 있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4) 배송미, 「결핵 조기퇴치 New 2020 Plan을 위한 전략」,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목록집』,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2012. 39-47쪽.

배송미는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은 1962년 이후 국가 중심의 전국적인 결핵관리사업 시행과 경제성장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 환자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아직도 매년 3만 5천 명 이상의 신규 환자와 약 2,0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OECD 가입국 중 발생률과 사망률 1위(201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98명 발생)라는 불명예를 1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김희진과 박윤재는 결핵의 발생과 원인 규명에 도시화가 밀접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⁵⁾ 권보드레와 최은경의 논의는 결핵이 근대와 충돌되는 개념이라는 논의를 펴고 있다. 특히 최은경은 결핵의 용어가 우리문화사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근대 문학에 수많은 결핵 환자들에 대한 관심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주로 은유와 상징에 대한 결핵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서양의 수전 손택이 <은유로서의 질병>에 대한 해석과 그 맥을 같이하는 논의들이다.⁶⁾

본 연구는 위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심화 확대하는 기호학적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일제시대 문학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염성 질병인 결핵이 과학적 개념을 어떻게 인식시키면서 진화하는 은유적 현상으로 의미망을 구축해 가는지 살피고 형이상학적 은유와 상징을 넘어 과학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 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결핵을 통한 근대 과학적 지식과 사회 문화적 풍경을 들여다보면서 위생, 과학, 섭생, 요양, 면역, 정신질환, 신경쇠약 등 근대 의학과 사회적 변화상의 관계를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 문학 작품에서 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은 주로 은유와 상징의 장치로 활용되어 왔고 본고 역시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의미로써 결핵의 상징성을 형이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읽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따라서 의학과 문학과 사회

5) 김희진, 「결핵 및 호흡기질환 : 결핵 심포지움 ; 결핵 예방」,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2000, 65~74쪽.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 『한국 근현대사 연구』 47, 한국근대사학회, 2008. 215~234쪽.

6) 임병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82~103쪽/이수영,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미적 감각의 병리성」, 『민족문화사연구』 26, 민족문화사학회, 2004. 259~285쪽/이재복, 「이상 소설의 각형하는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6, 근대여성문학학회, 2001. 159~193쪽/전홍남,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병리성과 문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모티프와 글쓰기 방식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010. 251~281쪽.

적 현상이 융합적으로 읽힐 수 있는 단초를 만들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근대 한국 문학에서 많은 작가들은 결핵으로 죽어갔고, 한쪽에서는 결핵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결핵의 고통에 대해서 쓴 작가들도 상당히 많다. 본고가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들은 실제 결핵에 걸린 작가들이며 그들이 느끼는 결핵의 공포가 사회 문화적인 특수한 현상으로 어떻게 은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광수를 비롯해서 많은 근대 작가들은 이 공포의 치명적인 질병에 맞서야 했는데, 김동인, 나도향, 염상섭, 강경애, 최정희, 김유정, 이상, 채만식, 박용철, 이용악, 오장환, 현진건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으로 결핵이 미치는 은유와 상징의 부분을 넘어서 과학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문학적 영향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시킬 것이다. 첫째, 많은 문학 작가들에게 결핵은 은유로 존재했었다. 그러나, 결핵이 추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원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도시화 과정 속에서 위생과 피로가 관련된 과학적 질병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한다. 따라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함께 인식되어 가면서 결핵의 원인과 결핵의 실체 발견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문화적으로 현미경, 엑스레이, 주사 등 서양 의학의 과학적인 위력을 인식해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근대 결핵 인식의 방향을 고찰한다. 둘째, 결핵이 위생과 과학적 사유와 관련이 있지만 당시 조선인들의 영양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면역체계의 취약성은 당시 근대 조선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의 많은 쌀은 일본으로 수출되고 정작 조선 내 이용 가능한 식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다. 곡류의 양은 줄어들고 서류의 양이 증가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현상이 문학작품에서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또한 술이나 연초류가 1930년대 늘어남에 따라서 1930년대 작품에는 결핵이 술이나 연초류와 굶주림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면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결핵의 치유방안으로 섭생의 중요성과 요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고, 김유정과 이상의 작품에는 이러한 요양이 문학 작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또한 섭생과 요양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면역력 강화가 질병을 극복해내는 자생력이라는 공감대를 가지게 하였다. 셋째, 1930년대 급증하는 결핵의 증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에 대한 긍정적 신호보다는 우울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였다. 유독 1930년대 발표된 결핵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보여주는 정신 질환적 징후와 신경 쇠약증은 근대를 살피는 또 하나의 질병 매개체이자 상징이다.⁷⁾ 이는 신체적 질병이 정신적 질환을 유발하는 과학적 매개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은유적 결핵에서 피로와 위생의 과학적 사고로의 전환

19세기 서양에서 결핵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퍼져나갔던 법정 전염성 질병이다.⁸⁾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10년대부터 결핵에 대한 질병이 위협하게 인식되면서 점차로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급속하게 결핵환자가 증가해 갔다. 즉 결핵은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이 긴밀하게 논의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이었다. 근대 이전 시대에는 실제로 질병을 사진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상

7) 황상익,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을유문화사, 2014, 311~315쪽, 301~325쪽.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양 상태는 1일 칼로리 섭취량이 1910년부터 1940년대를 조사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었고 그마저도 점차로 영양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1910년대 1900칼로리이던 것이 1800칼로리로 떨어지다가 1700칼로리로 떨어진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의 영양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다. 질병의 현황과 상수도의 보급 정도와 곡물과 서류의 섭취정도와 연초류와 주류의 증가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1930년대 영양소의 등장과 크리스마스일의 등장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필 수 있다.

8) 박인순, 「일정기 조선총독부 보건복지행정의 내용분석 - 전염병퇴치활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3, 한국복지행정학회, 2003. 132~158쪽.

법정전염병을 규정하여 이에 대한 방역 및 제압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콜레라 두창, 장규부시, 적리, 성홍열,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페스트 등에 대한 방역 및 제압활동을 강화하고 페디스토마, 기생충과 같은 지방병에 대한 퇴치활동을 강화하고 검역소의 설치와 전염병의 학술적 조사를 통해서 각종 전염병의 퇴치에 노력하였다.

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엑스레이와 같은 과학적 도구의 도입은 병에 대한 근대인들의 사유 패러다임을 바꾸어갔다. 즉 문화적으로 현미경, 엑스레이, 주사 등 서양 의학의 과학적인 위력을 인식해 가는 시기였다. 이는 당시 일제의 상수도 정책과도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으로 당시 상수도 보급과 조선의 환자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의 위생과 전염병 방지를 위해 상수도를 많이 보급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은 조선내 거주하는 일본인들 소수의 몫이었다고 한다.⁹⁾ 본 연구에서는 근대 문학 작품에서 등장하는 결핵을 상징과 은유를 통해 서가 아니라 위생과 피로와 과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서양에서 결핵은 글쟁이와 예술가들의 낭만적 질병이자 상징과 은유의 질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문학가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도스토예프스키, 카프카, 바이런, 에드거 앨런 포, 브론테 자매, 발자크, 조지 오웰, 비평가 벨린스키와, 극작가 체호프 등 많은 사람들이 이 결핵이라는 병마와 싸워야 했다. 우리 근대 문학의 장을 연 이광수는 <나는 청춘이다>라는 작품에서 “신경쇠약장이의 눈을 우구려버려라”라고 외쳤으며 “결핵성의 센티멘탈리즘”을 버리라고 말한다.¹⁰⁾ 즉 이광수에게 결핵은 상징이자 은유로서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결핵이 센티멘탈로까지 인식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근대 초창기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질병이 결핵이었음을 미루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문학가들에게 결핵은 수전 손택이 주장했던 것처럼 은유로서의 질병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¹¹⁾ 당시 문학가들 사이에서 결핵은 삶의 열정이 격렬할 때 나타나는 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낭만주의적이고 비극적인 미의식을 형성하는 은유와 상징이었다.

한국 문단에서 결핵은 이광수와 나도향으로부터 논의될 수 있을 것이

9) 황상익, 위의 책, 301~323쪽

10) 이광수, 「너는 靑春이다」, 『창조』 8호, 1921.1.

11)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Illness as Metaphors』, 이후, 2002.

다. 이광수의 <무정, 1917>과 <H군을 생각하고, 1924>는 비교적 초창기 결핵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도향은 <환희, 1922>와 <나의 과거, 1921>와 <피 묻은 편지 몇 쪽, 1925> 등을 발표한다. 나도향의 <환희, 1922>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결핵이라는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혜숙의 비극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다. 또한 황보 염상섭 역시 결핵 환자를 다룬 소설 <해바라기, 1923¹²⁾>와 <진주는 주었으나, 1925>를 발표한다. 염상섭의 <해바라기, 1923>에는 대물림하는 질병으로서 폐병이 등장하는데, 실연의 경험이 있는 늙다리 신부 영희와 재취장가를 가는 노신랑 수택이 결혼하여 신혼여행간 H군에서 신혼부부가 김서귀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김서귀는 영희의 전 애인인 홍수삼이 폐결핵으로 죽고 수삼이 죽은 지 일 년이 못되어 수삼의 부친도 폐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홍수삼네 집안은 폐병으로 각혈하는 것이 내력이라고 김서귀는 말한다. 초기 문학 속 결핵인식은 유전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핵을 다루는 또 다른 작품인 <진주는 주었으나, 1925>에서 염상섭은 개성이나 자유연애 같은 근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청년의 욕망이 식민지 자본주의의 피상적이고 속물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되고 환멸을 느끼면서 결핵에 걸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폐단과 속물적인 현실로 상징화 하면서 그것이 곧 결핵의 위험성으로 이어지는 은유적 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주인공인 제국대학생 효범은 여류음악가 인숙을 둘러싼 애정 갈등과 식민지 속물 자본가들의 타락을 경험하며 각혈한다. 이때 각혈하는 결핵은 식민사회에서 좌절되고 피로한 정신의 산물로 그려진다. 이는 결핵이 다분히 상징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예이다. 예를 들어, 이태준의 <까마귀>에서처럼 인간과 인간의 잘못된

12) 이제 막 결혼식을 마친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나선 신혼여행길이 바로 죽은 연인이 묻혀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죽은 연인의 무덤에 묘비를 세워준다는 소설이다. 이 여성 주인공 최영희가 나혜석이고 죽은 연인이 최승구이며, 남편이 변호사 김우영에 해당한다는 사실상의 실명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연인은 결핵으로 죽어간다.

만남을 결핵이라는 병으로 그리고 있고 정지용의 <유리창 1>에서는 사랑하는 사람 즉 자신의 아들을 잃는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기도 했다.

근대 결핵은 그 위협적인 상징성과 은유성 때문에 쉽게 초자연적인 힘에 의거해 이 병을 해석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무(巫)와 의(醫)가 동일한 범주에서 자주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근대 작가들이 가지는 근대 전염병에 대한 인식은 과거의 초자연적인 무속이나 원시적인 초종교성에 기대고 있는 경향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억울한 원혼이 뭉쳐서 원기가 된다고 믿었고 그 원기가 흩어지면 재앙이 없어진다고 믿었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과학적 인식을 드러낸다. 과거에는 전염병과 같은 역병은 제사를 지내는 제관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믿었으며 축문과 향으로 역병이 사라질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콜레라는 쥐귀신이라는 악귀가 몸에 들어와서 발부터 올라가 복부를 자극하고 근육의 쥐를 일으킨다고 믿었다. 따라서 쥐 근육을 없애기 위해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이곤 했다.¹⁴⁾ 근대 초기 결핵이라는 전염병은 근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공포이자 위협으로 느껴졌고 그것의 실제적인 발현이 결핵과 같은 실체불분명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근대초기 이광수와 나도향과 같은 작가가 기술하는 결핵은 공포심을 불러오면서 역설적으로 다소 낭만적인 질병으로 그려진다.

근대의 결핵이 문학 작가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공포증의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핵은 근대의 인간을 더 이상 근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역설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결핵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들어온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바다 건너 일본의 근대 문화 유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결핵은 일본과 타율적 근대라는 맥락에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 문화처럼 상징적으로 여겨졌다. 동아시아

13) 최남선, 이영화 역, 『조선상식문답 속편』, 경인문화사, 2013, 18쪽.

14)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의 질병 전파 경로를 이야기하는 논의를 펴고 있는 여인석은 두창, 홍역, 장티푸스 같은 발진성 전염병은 전쟁을 포함한 대외 교류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다고 말한다. 당나라와 활발한 물적·인적 교류를 하면서 당나라에서 유행하던 전염병이 신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강대한 세계 제국인 당나라가 서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질병들 또한 많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여러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희생자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영양 상태가 불량한 가난한 농민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농민들이 죽으면서 농사지를 사람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곧 농업 생산력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기근 희생자들을 불러오곤 했다.¹⁵⁾

식민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결핵을 비롯한 전염성 질병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일제는 10대 법정 전염병을 지정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다지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다. 식민지 초기 일본의 조선 총독부는 국가적인 위생설비 구축보다는 개인의 위생 사상 구축에 방점을 찍고 개인 스스로 질병에 대처해야 함을 설파했다. 일본은 폐결핵을 예방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질병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 내놓은 대처 방안이 고작 ‘침 뱉는 것’을 방지하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제의 소극적인 결핵정책은 식민지 조선을 더욱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결핵은 다른 질병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국가의 중요한 노동력인 청장년층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었고 사회의 무기력증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나도향의 결핵은 1925년과 1926년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만다. 나도향은 병이 악화되었지만 의사인 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동벌이로 피로한 가운데 원고를 써야했기 때문에 삶의 경제고가 매우 컸다.¹⁶⁾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가 겹쳐서

15) 여인석, 「한국 전염병사 개관」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나도향의 결핵은 더욱 깊어갔다. 나도향의 결핵이 급격히 악화된 데에는 피로가 단단히 큰 몫을 차지한다. 당시 결핵은 치사율도 높지만 약값과 보양을 위해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은 질병이었다. 1920년대 조선의 결핵 환자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다. 따라서 요양소와 같은 시설이 필요했지만 1920년대에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다. 심지어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결핵을 범죄시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즉 결핵을 개인위생의 책임 하에 두면서 가래나 침을 뱉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¹⁷⁾

문학작품 속에서도 상징과 은유의 결핵의 의미만큼이나 피로와 과로가 이 질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즉 과로와 피로에 찌든 노동자가 결국 결핵으로 죽어간다는 이야기는 강경애의 <인간문제>의 주인공 ‘선비’에게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방직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결국 치명적인 결핵에 걸리고 만다. 최정희의 작품 <홍가>에서 나오는 여성 역시 가장의 역할을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마침내 홍가로 이사한다. 이사한 홍가에서 악몽을 꾸면서도 심신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 결국 결핵으로 죽어간다. 과도한 피로와 열악한 위생 조건은 당시 결핵을 유발하는 주된 병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수의 문학 작품에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근대 식민지 권력은 이러한 위생관념을 등장시키면서 민중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관혼상제의 전통과 상투와 의복과 같은 전통을 비위생적인 활동으로 지목함으로써 조선의 전통적인 것은 비위생적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는 식민전략을 펼치고 있었다.¹⁸⁾ 전염

16) 나도향은 나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는 둘 다 문필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한의사였고 아버지는 양의사였던 의사집안이었다. 그 역시 의학 학교 학생이었던 나경손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경사스러운 손자’라는 의미로 경손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정작 나도향은 이 이름을 매우 싫어했다.

17) 박현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핵의 표상 -나도향의 경우」,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55~282쪽.

성 질병은 조선인들에게 고통과 공포를 주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위생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는 식민지 논리에 의해 조선인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를 두고 신규환은 위생행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근대국가 형성에서 국가 권력이 공공영역의 확장을 통해 국가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위생을 감독하는 강력한 권력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근대국가의 위생행정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관리, 질병통제, 환경위생, 위생교육 등 개별 신체뿐 아니라 의식주를 포함한 인간 활동의 모든 면을 포괄하고 있다. 즉 새로운 위생행정에서 민중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항상적이며 일상적인 권력의 행사를 체감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¹⁹⁾ 많은 근대 작가들이 결핵이라는 질병을 은유와 상징의 도구로 활용해 식민지 현실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결핵의 원인이 실재 현실의 피로와 위생과 관련된 과학적 담론임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Ⅲ. 결핵과 함께 생성된 섭생과 요양의 면역관념

조선의 개항은 이중화된 시선을 통해 종종 묘사되곤 한다. 조선을 개화의 대상으로 보는 서양인의 교화적 눈과 우리의 문화를 침범한다는 경계의식을 가지는 내국인의 반감적 시선이 교차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개항장 안에 한국인의 거주실태와 외국인의 조계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인은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도시화와 도시 빈민과 위생과 스트레스는 결핵의 원인으로 이야기 되는 근대의 병인의 지표들이다. 근대화에 준비되지 않은 조선인들에게 결핵은 예방이 불가능한 속수무책인 질병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개항과 마땅한 예방책이 없는 결핵은 일종의 동일한 개념으로 조선의 근대 난맥상을 보여주는 상징

18)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19)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출판사, 2008.

화된 은유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변화는 질병의 변천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대 개항은 서양 열강의 급습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결핵 역시 급습하듯이 조선의 근대 문화 풍경을 바꾸어 간다. 근대초기 결핵은 피로나 소모의 개념이 결합한 용어로 소모성 질환(wasting disease)으로 이해되었다.²⁰⁾ 이 병은 나쁜 환경과 영양 결핍과 작업 유해 물질이 그 원인라고 여겨졌다. 최은경은 조선 개항기에 조선에 온 외국인들의 묘사에 의존해서 개항 초기에 결핵 환자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서로 다른 조사 통계를 보여주면서 논증해내고 있다. 즉 일본의 군의관은 조선에 폐결핵이 적었다고 말하고 서양의 선교사들은 결핵환자가 많았다고 상반되게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결핵은 조선에 근대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상징화하는 명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모증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한 부정적 근대의 현상을 상징화시키는 것이다. 결핵이 무서운 것은 들어오기는 했지만 쉽게 퇴치할 방법이 궁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일제의 근대화 역시 조선에 전파되어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선을 타율적으로 급격히 황폐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조선의 근대화는 일제 식민지라는 왜곡된 타자에 의해서 감행되었기 때문에 더욱 결핵의 유해성과 결합되기 쉽다. 결핵은 개항기 조선의 현실을 말해주는 투영성의 질병이자 은유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제가 없는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개항으로 이어져서 외세에 의해 지배당하는 나라의 무력한 운명을 상징화시킨다. 공포, 불안, 피로, 무력감, 도시화, 빈민화, 부품화 등 개항 이후 조선의 근대화를 나타내는 상징적 용어는 그대로 결핵이라는 불치병으로 그 의미가 결합되면서 전염병 결핵은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집을 짓는 목제에서부터 도시를 건설하는 모든 재료는 그간 조선을 만들었던 나무

20) 최은경, 「개항 후 서양의학 도입과 결핵 용어의 변천」, 『의사학』 21-2, 대한의사학회, 2012. 227~250쪽.

와 흙의 자연적 도구가 아닌 낫설고 인공적인 콘크리트와 시멘트였다. 조선의 근대화는 원인이 분명치 않은 질병처럼 사회에 급속하게 전파되어 갔다. 당시 결핵의 획기적인 치료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가는 것 정도를 들 수 있다. 근대 작가들의 글에서도 주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은 요양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여행으로 이어지는 이 질병은 그 치명성에도 불구하고 자꾸 낭만적 향수로 결합되곤 했다.

일제시대 전염성 질병은 세균과 감염과 같은 위생과 연관된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유전과 같은 과학적 결과로써 인식되었다. 이렇게 과학적 재구성을 거치면서 그 대처 방안 역시 근대적이고 과학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소설 속에서도 초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병을 고치거나 기원을 통해 병을 고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섭생과 요양과 같은 면역관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1920년대에는 조선총독부는 요양소를 설치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에 대한 처방은 주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근대 요양에 대한 관념은 나도향의 1925년 작품 <피 묻은 편지 몇 쪽>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은 마산이라는 도시로 나도향이 요양을 간 이야기이다.²¹⁾

<피 묻은 편지 몇 쪽>에서 마산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나도향이 찾은 요양지이다. 19세기 말부터 일제시대 주요 항구였던 마산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도시 정비도 잘 되었고 산과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휴양지나 요양지로 유명했다. 나도향은 늘 마산을 동경하였다고 하는데, 작품에서는 “마산의 바다는 좋습니다. 바다의 공기를 마시고 그것을 내뿜을 때는 마치 바다를 삼켰다가 배알는 듯 한 때가 있습니

21) 일제 강점기에는 해외로 가는 이동 수단이 주로 배였기 때문에 부산, 군산 등 항구 도시가 발전했는데, 마산은 경남의 대표적인 항구였고 일본인이 많이 들어와 살았다.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도시 지역이 창원군과 분리되어 부(府, 1949년 8월 15일 '부(府)'를 '시(市)'로 명칭 변경)로 설정될 정도로 주변 지역에 비해 일찍 도심이 형성되었다.

다. 구마산(舊馬山) 지저분한 부두에 섰을 때라도 바다를 내다 볼 때, 멀리서 흰 돛을 단 배가 유리 같은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갈 때에는 돛대 끝에 내 맘 한 끝을 매고 한없이 먼 나라로 나의 마음을 끌여가는 듯합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폐결핵이 낱기를 바라고 마산에 요양을 왔지만 나도향의 건강은 더욱 나빠져 갔다. 작가 이태준은 <도향 생각 몇 가지>에서 나도향의 각혈을 “자기 앞에 떨어진 꽃잎보다 더 붉은 핏덩이”라고 전하고 있다.²²⁾

일제시대 급격하게 시작된 도시화는 곧 열악한 거주지, 대기 및 수질 오염, 하수 처리 시설의 미비, 열악한 위생 상태의 문제를 가져왔고 이때문에 도시 인구의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도시 빈민층을 이루었던 공장 근로자의 생활은 열악했다.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는 강물로 흘러 들어갔고 이는 식수의 오염을 초래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위생 환경은 곧 질병의 온상이 되었다. 그러나 다소 나아진 위생이 지금까지 인간과 공존했던 세균까지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위생이 좋아져도 도움이 되는 적절한 세균이 없어서 버리게 되어 설상가상으로 면역형성에 장애를 주는 아이러니도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한다.²³⁾ 일제강점기의 많은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과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 같다.

작가 김유정은 죽기 직전까지 고향 춘천에 내려가서 치질, 늑막염, 대인기피증, 우울증, 폐결핵이라는 질병과 치열하게 싸운 것을 그의 수필 여러 곳에서 서술하고 있다. <나와 귀뚜라미>에서는 ‘살고도 싶지 않지만 또한 죽고도 싶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다. 또한 <어떠한 부인을 맞이 할까>에서는 자신의 절망적인 결핵 병증에서도 자신과 같이 우울증과

22) 이태준, 「도향 생각 몇 가지」, 『현대평론』, 1927-8, 24쪽.

“일보리역건너편동산에는 어우러지는 樅나무꽃이바람에 휘날니여 길을 붉게덮혔다. 도향은 거름을 멈추고 앉서가든나를불릿섯다 그 하얗게질닌 얼굴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는 자기압해떠러진 꽃잎보다더붉은 핏덩어리 하나를 굽어보고섯든 것이다.”

23) 홍윤철, 『질병의 탄생-우리는 왜, 어떻게 질병에 걸리는가』, 사이, 2014. 181쪽, 311쪽.

각혈의 결핵을 가진 여자가 있다면 사흘만이라도 그녀와 함께 살고 싶다고까지 말한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핵에 맞서는 인간 존엄성을 발현시키는 글을 쓰기도 한다. 작가가 죽기 전 쓴 <병상의 생각>에서는 병든 몸이지만 작가의 사명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는 마지막 글 <필승 전>을 통해 결핵에 맞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일거리를 보내면 **“50일 이내로 치료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받은 돈으로 닭을 한 30마리, 살모사 구렁이를 10여 마리 고아 먹고 일어서겠다”**고 호언장담한다. 소설 작품과는 다소 다르게 비소설 작품들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많이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작가 김유정은 가난과 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서 오는 삶의 좌절과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문학적 사명을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²⁴⁾ 김유정 <산골나그네>에서 결핵에 걸린 사내가 등장한다. 사내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극한의 가난과 연관되어 있다. 작품에서는 결핵으로 추정되는 나그네의 남편만 황량하게 그려질 뿐이고 그 병에 대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그리지는 않는다. <산골 나그네>는 결핵으로 추정되는 병든 남편을 구하려는 상상력이 엿보인다.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의 나그네는 결핵으로 추정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산골 주막에서 떠돌이처럼 생활하면서 거짓 결혼까지 자행한다. 자신의 남편을 위해 결혼한 남편 덕돌이 아끼는 귀한 옷가지를 가지고 도망 나와 결국 자신의 남편에게 입혀 몰래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최소한이라도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결핵이 섭생과 영양과 관련된 면역 관념 관련 질병이라는 생각은 이상의 작품에 다수 등장하는 영양 문화를 진단하게 해준다. 이상의 작품은

24) 유인순, 「김유정의 우울증」,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27~128쪽.

<봉별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작품이 직·간접적으로 결핵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문학을 결핵의 문학이라고 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전기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볼 때 <봉별기>의 B라는 곳은 황해도 배천 온천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이상은 약탕관을 가지고 요양하러 찾아간 배천의 어느 여관에서 금홍이라는 창녀를 만난다. 당시 결핵의 치료 방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이나 휴식과 같은 치료법을 따랐다. 결핵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가장 자전적인 글인 <봉별기>속 나의 나이는 23세였고 금홍이는 21세였다. 나는 금홍이에게 마흔이나 서른아홉으로 오인되고 금홍이는 열여섯이나 열아홉쯤으로 오인된다. 금홍이는 자신이 경산부임을 감추지 않고 나 역시 금홍이를 사랑하지만 금홍이가 나 아닌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이다. 작품 마지막에는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굶이굶이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 질러 버려라**”는 노래가 등장한다. 이는 결핵이라는 질병에 걸린 식민지 지식인의 무기력함과 좌절된 이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또 다른 작품 <실화>의 주인공 역시 폐병환자 즉 폐결핵이다. 아내 연이는 내가 다 아는지도 모르고 다른 남자와 수상쩍은 일을 벌인다. 친구 S는 연이와의 정사를 나에게 들려주고 나는 타인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나 즉 이상은 세수할 때마다 동경행을 꿈꾸고 자살을 꿈꾼다. 이 작품에서 폐병장이인 친구 유정을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失花라는 제목에서 ‘꽃을 잃음’이란 삶의 의지를 상실한 것에 대한 은유라 할 수 있다. “**어느 장화가 짓밟았을까. 그러나—검정 외투에 조화를 단, 땀서 한 사람. 나는 이국종 강아지울씨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꽃을 잃었다’는 제목을 상기시켜준다. 실제로 194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해주에 결핵 요양소를 설치하게 된다. 이 역시 매우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광수 역시 <유정, 1938>에서 결핵 치료를 위한 요양을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사랑 이야기를 펼쳐간다. 친구에게서 남편 안빈과 순옥이

불륜의 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옥남은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폐렴으로 인해 좋지 않은 몸이 더 나빠지고 이를 본 남편은 요양하러 가자고 하여 자식들과 함께 원산으로 요양 간다. 안빈은 병원 때문에 경성으로 돌아와 순옥에게 부인의 간호를 부탁한다. 원산에서 순옥과 함께 있게 된 부인은 자식들이 순옥을 잘 따르고, 그녀의 인간됨에 감동하여 자신이 병으로 죽으면 아이들과 안빈을 부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순옥은 안빈이 존경하는 분이기에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은 잘 돌봐 주겠다고 약속한다. 불교적 구도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유정>은 여자 주인공의 결핵을 치유하기 위해 요양을 떠나는 것으로 나온다.

이광수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근대 문학의 대표 작가인 김동인의 <수정비둘기> 연작 3부작 역시 결핵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결핵을 앓고 있는 청년이 모란봉 터를 요양차 산책하면서 구상한 이야기이다. 액자식 구성을 가진 「수정비둘기」, 「소녀의 노래」, 「수녀」의 연작소설은 결핵으로 죽어간 청년의 마지막 순수과 낭만적 꿈에 대해 상상하던 식민지 작가가 현실의 조선에서 그러한 낭만도 순수도 아무것도 없는 각박함을 환기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가슴을 파먹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에 시달린 외로운 젊은이는 어떤 날 저녁, 어떤 해안의 조그만 도회의 거리를 일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떤 집 문 앞에서 그 집 대문턱에 걸터앉아 있는 소녀를 하나 보았”는데 “소녀의 눈은 수정과 같이 맑았다. 진주와 같이 부드러워 병 때문에 감격키 쉬운 젊은이”가 그 죽음의 순간에까지 소녀의 눈을 그리워하며 죽어갔다는 이야기이다. 그 젊은이는 병이 차차 무거워지면서 아무 친척도 없이 한 사람의 의사와 한 사람의 간호부와 한 사람의 노파를 데리고, 이 해안에서 저 해안으로 고치지 못할 병을 행여나 고치어 볼까 하고 돌아다니면서 요양을 하는 이야기이다.

결핵은 일제시대 열악한 환경과 나쁜 건강 상태와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 작가들의 요양상상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채만식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놓칠 수 없는 작가이다. 채만식의 <병

이 낯겨든 ‘童話’의 續篇으로, 1941>에 나오는 공장 노동자 업순이 역시 기침하는 폐결핵 노동자 환자로 나온다. 그녀는 정든 공장을 떠나 고향에서 요양을 하며 생의 마지막 나날들을 정리한다. 여기에서도 결핵은 노동자의 과로와 나쁜 영양상태 등 빈곤한 생활을 드러내는 병리적 매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핵의 증가는 인간의 섭생과 영양과 면역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렵채집 시대에서 농경사회로 진화해 오면서 현대사회는 영양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잉태시키고 있다.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곡류를 과다섭취하고 육류소비가 과다해졌다고 말한다. 유전자가 부적응된 상태에서 몸의 부조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홍윤철은 말한다. 그렇다면 일제시대에 급격하게 진행된 결핵의 원인을 식민지 통치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황상익의 지적대로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곡류소비가 줄고 주류나 연초류가 증가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면 술이나 담배 역시 사람들의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1930년대 김유정 작품들에 등장하는 술을 파는 들병이의 잦은 출현과 이상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술을 파는 기생들 이야기를 이러한 사회적 연관성 속에서 살필 수 있다. 현진건은 <술 권하는 사회, 1921>라고 일제 시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결핵에 대항할 만한 충분한 면역 기간을 가지지 못하고 영양상태 또한 현저히 저하되어 가고 있었다. 심지어 1930년대에는 결핵환자가 40만 명이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4만 명이나 되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²⁵⁾ 즉 결핵은 식민지 시대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회 문화적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25) <동아일보>, 1936년 4월 8일자 보도.

IV. 결핵의 새로운 기의로서 정신질환과 신경쇠약증

일본의 결핵 정책이 1910년대와 1920년대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지만 1930년대는 ‘국가의 적’이라는 명칭을 쓸 정도로 강력한 처방을 강구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적인 퇴치운동이 식민지 국민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일 전쟁의 대외적인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²⁶⁾ 노대원은 니체의 철학적인 의사 개념을 활용한 들뢰즈의 용어 만들기에 기대어 이상(李箱)이라는 작가를 식민지 문화의사(Cultural Physician)로 바라보면서 단지 환자로서가 아닌 환부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치료행위를 수행하는 문화의사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²⁷⁾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을 위해 일본의 조선 내 결핵 예방 정책은 그 이전 시대 개인의 위생에 한정시켰던 것 보다는 훨씬 적극성을 띠게 된다. 1936년에는 ‘건강 조선’, ‘결핵균을 박멸하자’는 구호를 펼쳤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자 ‘국민 전체의 일심동체’와 ‘국민 체위 향상’을 외치면서 결핵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급기야 ‘예방진’, ‘장기항진’, ‘동원령’, ‘보건진’ 등의 전쟁용어로 표출되기에 이른다.²⁸⁾ 결핵은 근대 식민지에서 정확한 진단을 거치지 못하면서 점점 더 번창하고 악화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일제의 정책과 결합되면서 더욱 가중되는 공포심을 불러오고 있었다. 즉 식민지의 암담하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은유적으로 결핵의 감염과 일치되어 상징화되고 있었던 셈이다. 즉 결핵은 1930년대에 와서는 그 이전 시대가 가지는 결핵의 기의를 벗어나 또 다른 의미를 담는 새로운 기표가 되는 것이다. 즉

26)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 소극적 규제로 시작된 대응과 한계」, 『의사학』 23-3, 대한의사학회, 2013, 714쪽.

27) 노대원, 「식민지 근대성의 ‘문화 의사, cultural physician’로서 이상, 李箱 시」, 『문학치료 연구』 27, 문학치료학회, 2013. 251~280쪽.

28)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1945) : 소극적 규제로 시작된 대응과 한계」, 『의사학』 23-3, 대한의사학회, 2013. 717쪽.

피로와 위생과 영양과 면역 등의 신체적인 균형이 망가진 불균형 상태의 질병이라는 기의를 넘어서서 인간의 정신적 영역의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의 작용을 보여준다.

일본의 결핵 통계를 살펴보면 일제 강점기에는 결핵의 수가 매우 적었다고 전한다. 당시 나병 환자보다 결핵 환자가 적었다고 하는데, 1920년대를 지나면서 결핵 환자의 수는 급속하게 많아졌고 1930년대는 인구의 30퍼센트 가까운 수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온다. 1932년에 조선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실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만큼 조선 내 결핵환자가 많았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최초의 크리스마스실은 선교사 셔우드 홀에 의해 만들어졌다.²⁹⁾ 그러나 일제는 나병환자를 격리 수용하는 것으로 나병정책을 취했던 것처럼 일제는 결핵 환자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만 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³⁰⁾

많은 논자들은 1930년대 결핵의 증가를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찾거나 일제가 벌인 중일 전쟁에서 찾아왔었다. 그러나 결핵은 당시 전쟁 동원령을 받아야 하는 청장년층에만 한정된 특수한 질병이 아니었다.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아녀자와 어린이 층에게도 결핵은 치명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였다. 191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결핵은 위생 강화와 섭생 및 요양에도 별 다른 효력이 없이 1930년대에는 그 수가 40만 명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신경쇠약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결핵과 관련된 신경쇠약증이나 우울증을 앓았던 대표적인 작가는 김유정과 이상과 현진건을 들 수 있다. 결핵은 아니었지만 신경쇠약증을 보인 대표적인 작가는 박태원을 들 수 있다.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을 통해 당시 무력한 지식인의 정신 질환적 특

29) 황상익,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을유문화사, 2014, 325쪽.

30) 김미정,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지방사와 지방문화』 15, 역사문화학회, 2012, 6쪽.

성을 보이고 있다. 폐결핵과 장결핵으로 죽은 현진건은 <사립정신병원장, 1926>을 통해 직접적으로 시대의 특징으로써 정신질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대문학은 병리적 상태를 자주 활용했는데, 조직병리학의 측면에서는 결핵이 대표적이고 정신병리학의 측면에서는 신경증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참혹한 질병인 결핵이 낭만화 되면서 고독하고 섬세한 주체를 상징하는 메타포로 자주 사용되었다면, 신경쇠약과 히스테리 같은 신경증은 그 뒤틀리고 파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더욱 근대적인 주체의 표지로 간주되곤 했다.³¹⁾ 즉 결핵의 기표는 일차적인 영양 부족이나 면역 약화가 아니라 뒤틀린 일제시대 지식인의 정신 상태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해학과 웃음의 작가인 김유정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대표적인 작가였는데 그에게는 회피성 장애, 경계선성 장애, 편집성 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가 중첩되어 있었다고 한다. 김유정의 중첩된 우울증은 혈통에 따른 유전적 요인, 조실부모와 불행한 가족관계, 낙제, 실연, 무직, 말더듬, 질병 등에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있다. 김유정은 일종의 무의식적 병리 유발적 신념까지 갖고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³²⁾ 이상 역시 출생부터 다소 우울증과 관련된 요소를 가진다. 비교적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 백부의 집에 양자로 입양된 사연, 건축기사로서의 평범한 일상 등은 작가 이상을 문화의사로 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신경쇠약증의 대표적인 이상의 작품은 대부분 결핵환자의 이야기를 직접 담은 결핵 소재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핵을 직접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2월12일>, <공포의 기록>, <지도의 암실>, <동해>, <봉별기>, <실화>, <날개>, <종생기> 등 매우 많은 작품이 있다. 이상은 각혈하는 몸 즉 피를 쏟으면서 점점 탕진되어 가는 몸을 통해서 육체와 정신의 아이러니와

31) 이수영,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미적 감각의 병리성」,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화사학회, 2004. 259~285쪽.

32) 유인순, 「김유정의 우울증」,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폐러독스와 자기 소외라는 이중화된 근대의 구조와 근대적인 실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³³⁾ 이처럼 김유정과 이 상에게 결핵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기표가 되는 질병이 된다.

1930년대 대표적인 결핵환자 주인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채만식의 <치숙, 1937>을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일인칭 아이인 나는 대학까지 나와서 몹쓸 결핵병에 걸린 무기력한 아저씨를 공공연하게 비난한다. 배움이 부족하지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나의 가치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 이웃 내지인들과 잘 지내고 내지 여자와 결혼해서 모든 생활 법도를 내지화 하는 것이다. 나의 이상과 계획에 대해서 나는 무척 자부심을 느끼며 아저씨에게 설법한다. 성실하게만 일하면 나는 다이쇼에게 신용을 얻고 돈도 벌고 내지 여자랑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창창한 장래를 가진 희망적인 사람이다. 그러한 나의 눈에 대학까지 나와서 사회주의로 징역까지 살다온 결핵환자인 아저씨는 하루 바빠 죽어야 하는 사회의 잉여물인 것이다. 더군다나 전과자라는 신분을 달고 몹쓸 결핵병까지 얻어 나의 아주머니의 짐이 된 아저씨는 나의 시선에 의해 더욱더 왜곡되어 사회의 무용지물과 같은 존재이자 은둔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1930년대 여성 작가 중 강경애와 최정희는 결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강경애는 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한 작가인데, 작품의 소재 역시 결핵이 중요하게 자리한다. 강경애는 <인간문제, 1934>에서 주인공 ‘선비’라는 여성의 결핵을 다루고 있다. 선비는 주인 정덕호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노동자로 변신해서 활동하다가 방적 공장에서 폐결핵으로 죽게 되는 인물이다. 이 작품을 통해 일제시대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인천부두와 방적 공장의 세밀한 묘사가 노동자의 현실을 비추고 있으며, 결핵이 마치 일제의 강압과 악덕 지주를 상징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선비'는 노동자로 생활하고 고향 친구 간난이

33) 이재복, 「이상 소설의 각혈하는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6, 여성문학연구회, 2001.

를 만나 인천의 방적 공장에 취직하여 새 삶을 시작한다. 이 공장은 수많은 여공들을 기숙사에 수용하여 갖은 방법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 이에 맞서 노동자가 겪는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비밀 작업을 추진하던 간난이는 ‘선비’에게 일을 맡기고 공장을 탈출한다. 간난이가 나간 후 ‘선비’는 공장 감독의 유혹을 뿌리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폐결핵이 악화돼 그만 죽고 만다.

최정희는 <홍가, 1937>과 <인맥, 1940>에서 역시 결핵을 소재로 삼고 있다. <홍가, 1937>에서 작가는 강경애의 선비와 같이 강한 인물인 신문사 여기자인 나를 만들어 낸다. 나는 신문사의 여기자로서 집안의 생활을 도맡아 꾸려가는 가장(家長)이다. 지나친 과로로 폐결핵을 앓고 있으며 매우 섬세하고 소심하다. 홍가로 이사 온 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가족의 생계를 도맡아서 살아가는 여성으로 늘 정신적인 피곤함을 가지고 산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중 홍가라도 아쉬운 대로 집을 사게 되는데 이사 온 날 미친 여자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꿈을 꾸면서 두려움이 점점 깊어간다. 그러던 중 폐병 진단을 받고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집에 만족하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 비련의 인물이다.

여성 작가들에게 결핵의 묘사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정신적 질병과의 연관성을 가진다. 강경애의 경우 정조를 유린당한 여성의 심리적 상처가 결핵과 함께 그려지고 있고, 반면에 최정희는 이사 온 집에서 꿈과 미친 여자를 주인공의 결핵과 연관시키고 있다. 이상과 김유정과 채만식과 현진건이 그리는 남성 작가의 결핵은 스스로의 삶에서 느끼는 절박함과 패배감을 결국 정신 이상적인 징후와 기의로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강경애와 최정희의 경우, 남성과 지배계급으로부터 유린되거나 희생된 여성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치명적인 질병인 결핵에 걸리게 되는 악순환적 구조를 보인다. 식민지 여성은 식민 권력과 남성 권력에 의해 이중으로 억압되는 모순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작가들이 그리는 결핵환자인 여성의 기의는 이중적 사회 억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남성 작가들이나 여성 작가들의 결핵 인식과 해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질병이 정신적 우울증과 신경쇠약증의 기의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경쇠약증은 근대를 설명하는 하나의 결핵의 기의로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범위의 잠재 요인과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결핵은 근대를 매개하는 질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³⁴⁾

V. 나오며

본 연구는 현재 전염성 질병의 유행이 과거 결핵의 확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100여 년 전 우리 근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제점에서 시작되었다. 여전히 일부 전염병 치료의 유일한 방법이 격리 치료라는 점에서 전염성 질병이 유해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동조하게 된다. 폴 W. 이월드는 현 시대에 우리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에볼라 바이러스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조류독감과 같은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만성적인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말한다.³⁵⁾ 그만큼 세균 전염병은 우리 사회에 공포로 작용한다.

우리는 근대 공간에 근대성과 반근대성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바로 결핵과 같은 무서운 전염성 질병이 번창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외세에 의해서 잘못된 퍼즐처럼 맞추어지는 근대화가 결핵이라는 질병에 의해 더더욱 조각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대 결핵은 우리문학의 풍경을 다르게 나타낼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질병이었다.

34) 한스킴,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2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51쪽.

35) 폴 W. 이월드, 이성호역, 『전염성 질병의 진화』, 아카넷, 2014.

따라서 문학 속 결핵은 상징과 은유로 해석되어 오곤 했다. 본고는 문학 속 결핵이 근대의 문학에서 어떤 풍경을 그려내면서 근대인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결핵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성해했던 성병 역시 문학에서 다양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진건의 <정조와 약자, 1929>, 김유정의 <정조, 1936>, 김동인의 <발가락이 닳았다, 1932>, 이효석의 <장미 병들다, 1932>, 채만식의 <탁류, 1937> 등은 일제시대 성병과 관련된 담론을 보여주는 문화사적 의미가 있다. 문학은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써 기능한다는 점을 통해 문학 속에 그려진 질병에 대한 연구는 당대의 질병 인식을 보여주는 새로운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두중, 『한국의학문화연대표』, 탐구당, 1982.
- _____,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 김윤식, 『이상 연구』, 문학사상사, 1995.
- 대한결핵협회, 『한국결핵사』, 대한결핵협회, 1998.
- 데이비드 B. 아구스, 김영설 역, 『질병의 종말 -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 청림 Life, 2012.
- 박영재 편, 『문학 속의 의학』, 청년의사, 2002.
-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의 기원』, 해안, 2005.
- 배시에, 『감염병학』, 대왕사, 2014.
- 수전 손탁,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Illness as Metaphors』, 이후, 2002.
-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 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출판사, 2008.
- _____, 『국가, 도시, 위생』, 아카넷, 2008.
- 신동원,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2004.
-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의료정책연구소, 2012.
- 정과리, 『감염병과 인문학』, 강, 2014.
- 지크문트 프로이트, 최석진 역, 『정신분석 입문』, 돌을새김, 2009.
- 최남선, 이영화 역, 『조선상식문답 속편』, 경인문화사, 2013.
- 최은주, 『질병, 영원한 추상성』, 은행나무, 2014.
- 타다 토미오 황상의 역, 『면역의 의미론』, 한울(한울아카데미), 2010.
- 폴 W. 이월드, 이성호 역, 『전염성 질병의 진화』, 아카넷, 2014.
- 표정옥, 『해항도시 인천의 신화성과 종교성』, 보고사, 2015.
- 헨리 지저리스트, 황상의 역, 『문명과 질병』, 한길사, 2008.
- 홍윤철, 『질병의 탄생- 우리는 왜, 어떻게 질병에 걸리는가』, 사이, 2014.
- 황상의, 『근대 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2013.
- _____, 『역사가 의학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2015.
- _____, 『콜럼버스의 교환- 문명이 만든 질병, 질병이 만든 문명』, 을유문화사, 2014.
- 권보드래, 「현미경과 엑스레이-1910년대, 인간학의 變轉」, 『한국현대문학연구』 18, 2005, 한국현대문학회, 19~40쪽.
- 김건열, 「21세기 결핵퇴치 5대 과제」, 『협회장 백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초록집, 2000.

- 김미영, 「병상의 문학, 김유정 소설에 형상화된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문논총』 7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45~73쪽.
- , 「일제하 한국근대소설 속의 질병과 병원」, 『우리말 글』 37, 우리말글학회, 2006, 309~336쪽.
- 김미정, 「나환자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과 조선총독부의 나병정책」, 『지방사와 지방문화』 15, 역사문화학회, 2012, 429~466쪽.
- 김소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질병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7, 이화어문학회, 2009, 117~138쪽.
- 김주리, 「식민지 지식 청년의 표상과 결핵」, 『서강인문논총』 49,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457~488쪽.
- 김진아, 「일본근대문학에 나타난 결핵의 양상에 대한 考: 1900년대부터 1940년대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동일어문연구』 14, 동일어문학회, 1999, 52~70쪽.
- 김희진, 「결핵 및 호흡기질환: 결핵 심포지움; 결핵 예방」,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2000, 65~74쪽.
- 노대원, 「식민지 근대성의 ‘문화 의사cultural physician’로서 이상 李箱 시」, 『문학치료연구』 2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251~280쪽.
- 박윤재, 「조선총독부 우두정책과 두창의 지속」, 『의사학』 21-3, 대한의사학회, 2012, 377~401쪽.
- , 「조선총독부의 결핵 인식과 대책」, 『한국 근현대사 연구』 4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215~234쪽.
- 박현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핵의 표상 -나도향의 경우」,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2013, 255~282쪽.
- 배송미, 「결핵 조기퇴치 New 2020P Plan을 위한 전략」,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목록집』, 대한인수공동전염병학회, 2012, 39~47쪽.
- 박인순, 「일정기 조선총독부 보건복지행정의 내용분석-전염병퇴치활동을 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 13, 한국복지행정학회, 2003, 132~158쪽.
- 서은혜,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재난 모티프와 공동체의 이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5~43쪽.
- 안미영, 「이광수 초기 단편에 나타난 병 모티프 고찰」, 『어문논총』 37, 한국문학언어학회, 2002, 175~199쪽.
- 유인순, 「김유정의 우울증」,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21~138쪽.
- 이광수, 「너는 靑春이다」, 『창조』 8, 1921.
- 이수영,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미적 감각의 병리성」, 『민족문화사연구』 26, 민

- 죽문학사학회, 2004. 259~285쪽.
- 이인경, 「질병체험의 문학적 재현과 병자를 향한 타자의 시선」, 『어문논총』 56, 한국문학언어학회, 2012. 143~180쪽.
- 이재복, 「이상 소설의 각혈하는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159~193쪽.
- 임병권,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의 근대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82~103쪽.
- 전홍남, 「한국 근현대소설에 나타난 병리성과 문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 이상 소설에 나타난 은유로서의 질병모티프와 글쓰기 방향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0, 영주어문학회, 2010. 251~281쪽.
- 최은경, 「개항 후 서양의학 도입과 결핵 용어의 변천」, 『의사학』 21-2, 대한의사학회, 2012. 227~250쪽.
-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결핵 정책(1910 -1945):소극적 규제로 시작된 대응과 한계」, 『의사학』 23-3, 대한의사학회, 2013. 713~757쪽.
- 한스킴, 「근대성의 매개적 담론으로서 신경쇠약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문학연구』 25,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5. 151~184쪽.
- 허병식, 「폐병장ীদের 근대: 한국 근대 문학에 나타난 결핵의 표상」, 『한국학 연구』 35,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631~652쪽.
- 홍영표, 「결핵의 현황」, 『대한의학협회지』 36, 대한의학협회, 1993. 236~241쪽.

A Semiotic Study about the changing Meaning from the Kyulhak as a Metaphor and symbol to the scientific discourse of Modern Literature

Pyo, Jung-Ok

This article is to study about the semiotic Meaning of the Contagious Disease represented in the Modern Literatur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s, focusing on the major official designated communicable disease Kyulhak. In Korea, the modernity had been considered as a lethal death in the name of tuberculosis. This article is going to find out thre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tuberculosis to know about the contagious disease of the modernity.

The first, I will research about the kyulhak as scientific thoughts relating with hygenics and fatigue rather than supernatural and abstract phenomenons. Kyulhak is a symbol of the fatigue and the helplessness of the modern times. The second, In the modern times, people began to be concerned about perservation and medical treatment and immunity to overcome the unknowable physical pain. Many writers traveled to a good place to cure their tuberculosis. Eating well and taking a good rest are the most important methods to get over the lethal disease. People try to cure the contagious Disease, but ironically, the infectious disease became more contagious in 1930s. The third, many modern literary writers related their lethal illness kyulhak with a mental disease and neurasthemia. Kim Yu Jung, Yi Sang, Chae Man Sik, Hyun Jin Gun, Kang Kung Hae, and Choi Jung Hee are the writers to deal with a mental disease and neurasthemia. Korean modernity was destroyed with kyulhak-phobia. Literature are the instruments to show the changing signifier and signified about Contagious Disease Tuberculosis.

Key Words : Tuberculosis, Kyulhak, metaphor, symbol, modernity, Sociocultural Meaning, scientific thoughts, perservation, medical treatment, immunity, mental disease, neurasthemia, Semiotic, signifier and signified.

투고일 : 2015. 08. 15. / 심사일 : 2015. 08. 30. / 심사완료일 : 2015. 09. 05.